



## 가정예배문



### ① 예배초청 인도자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는 우리나라 명절 한가위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이게 하시고 풍요함과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 ② 찬송가 405장(통 458장) /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 ③ 기도 가족 중 한 사람 또는 인도자

### ④ 성경봉독 다니엘 6:19-28(본문 중 28절만 표기합니다)

28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 ⑤ 말씀 형통하였더라

우리 신앙인들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되어 감’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되어가지 않으면 형통하지 않다는 뜻이 되겠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참 많은 계획과 목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의 생각과 계획, 목표가 우리 뜻대로 되는 경우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참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가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때까지 공직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비록 포로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은 인정받았고 꽤나 높은 위치에서 생활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환난과 시련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 다니엘을 시기한 주변 고관들의 모략에 의해 사자 굴에 갇히게 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자 굴에 던져진 상황이 다니엘의 뜻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산 다니엘의 인생은 결코 형통하지 않은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에 나온 것처럼 그의 삶은 언제나 형통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인의 형통은 결코 세상의 것과 같지 않습니다. 사전이 정의하는 형통의 뜻,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되어 감’ 중에서는 소유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즉, 그 모든 일이 ‘누구(who)’의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상하시는 것처럼 그 누구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이것이 곧 우리 신앙인의 형통인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사자 굴에 던져질 수도 있고, 사도들처럼 박해받는 삶일 수도 있고, 바울처럼 가시를 가진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습니다. ‘나는 믿네’ 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의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는 날 동안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 길 가운데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더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오늘 다니엘이 사자 굴에서도 상함이 없던 것처럼,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어느덧 2022년의 하반기를 접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형통하십니까. 비록 인생이 내 뜻, 내 계획과 다르더라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릴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나아가 그것이 곧 ‘형통’한 삶이라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⑥ 기도 인도자

### ⑦ 찬송가 425장(통 217장) /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 ⑧ 축복의 시간 가족 모두 서로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 ⑨ 주기도문 다같이

### ⑩ 폐회 인도자

추석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